

# ‘2023 태권도의 날’, 태권도! 세계의 문화로 거듭나다

- 9. 4. 문체부 제2차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태권도의 날’ 기념식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9월 4일(월) 오전 11시,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세계의 문화로 거듭나다’라는 주제로 ‘2023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을 비롯해 태권도 단체와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태권도의 날’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태권도의 날’은 태권도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9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일을 기념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태권도 발전 유공자 표창, ▲태권코레오팀의 공연, ▲태권도를 응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상영 등을 진행한다.

장미란 차관은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 수많은 태권도인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라며, “문체부는 태권도가 세계인의 살아있는 매력문화로 남을 수 있도록 태권도 해외 확산, 새로운 경기종목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 포스터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실	책임자	팀장	박상현 (044-203-2791)
	스포츠유산팀	담당자	사무관	이정엽 (044-203-3165)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